

제168호

발행일 : 서기 2025년 8월 28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ngu@naver.com

‘겨레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6주기 추모식 엄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서거 제76주기 추모식이 26일(목)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박유철)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김석한 안동김씨 대종회장, 여야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와 독립유공자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찰악대의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모사, 숙명여대 합창단의 추모가, 그리고 헌화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백범 선생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헌신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894년 동학군 선봉장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의 길을 걸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 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에 앞장섰으며, 1908년에는 독립지사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며 평생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올해는 백범 선생이 환국한 지 80년, 서거한 지 76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 애국선열의 희생 위에 선 대한민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뜻을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김구 선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물질적 부강함이나 군사력보다는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통한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꿈꾸셨다”고 설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K-pop, K-드라마, K-뷰티 등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며 백범 선생이 꿈꾸던 나라로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안동김씨 문중에서는 석한 대종회장, 영환 판서공 회장, 형남 안렴사공과 회장, 재영 고문, 용관 익원공과 회장, 태영 대종회 사무총장, 태철·태신·태연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추모식을 통해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백범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은 바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좌로부터 (郡)발용, (翼)태철, (郡)태영, (按)형남, (翼)인식, (翼)용관, (文)영환, (翼)재영, (翼)태신, (翼)태연

2025년도, 대종회비 납부협조 요청

대종회 운영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으로 찬조금을 협찬하여 주시는 중친여러분, 그리고 대종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친여러분의 성금과 회비는 대종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대종회 회비를 깜박 잊으시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임원 중 친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예금주 : 안동김씨대종회



安東金氏大宗會事務處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02)2244-3717 fax 02) 2243-1073

2025년 을사년 세일사 일정 안내

향사 선조님	일자		소재지	장소	비고
	음력	양력			
충렬공 (휘 방경)	10.09	11.28(금)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능동재사	대종회 02-2244-3717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0	상락재	
문영공 (휘 순)	10.07	11.26(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29-1	경모재	김태철 총무이사 010-3718-0066
개성윤공 (휘 칠림)	양 10월 2째주 일요일	10.12(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	묘소	김이경 회장 010-5215-6752
전서공 (휘 성목)	음 10월 初丁日	11.24(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496-1	학당재	김재석 회장 010-9245-7701
부사공 (휘 천순)	10.16	12.05(금)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묘소	김원호 회장 010-2743-1855
양간공 (휘 승택) 상락군 (휘 묘) 문온공 (휘 구용)	양 10월 3째주 일요일	10.19(일)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단	김건 사무국장 010-3232-5840
안정공 (휘 구덕)	음 10월 1째주 일요일	11.23(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송림리 산67	묘소	김흥기 회장 010-4812-1763
도평의공 (휘 구정)	양 10월 3째주 일요일	10.19(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만취당길 17	만취당	김대회 사무국장 010-4557-1636
문숙공 (휘 영돈) 상락백공 (휘 진) 제학공 (휘 익달)	10.06	11.25(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가전1길 198-33	영모재	김석응 사무국장 010-7588-3255
정간공 (휘 영후) 영삼사공 (휘 천) 안렴사공 (휘 사렴)	10.05	11.24(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모정리 167	영모재	김용국 사무국장 010-3781-7868
익원공 (휘 사형)	10.06	11.25(화)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1리 214-2	낙포재	김태연 사무국장 010-2390-8373
서운관정공(휘 수)	10.01	11.20(목)	경기 의왕시 포일동 142-5	광곡재	김정수 사무국장 010-4788-6700
정의공 (휘 철)	음 11월 1째주 일요일	12.0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431	묘소	김수선 회장 010-5209-2815

‘예천 물계서원의 복원과 운영 방향’ 2차 학술회의

1. 발표배경

[1] 예천군 연혁

- 예천군은 신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눌지왕(417~458) 때 ‘수주촌(水酒村)’이었으며, 지증왕 6년(505)에 ‘수주현(水酒縣)’이 됨.
-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1경 5도 양계체제로 할 때 용주군은 용궁군으로 고쳐 상주목에 속하게 되었고, 감천현은 안동영지사부에 이속됨.
- 명종 2년(1172)에 용궁군에는 감무를 두었음.
- 원종 15년(1274)에 상주목 관할의 다인현을 예천군의 속현으로 삼아 광무 10년(1906)까지 영속함.
- 충렬왕 7년(1281) 충렬왕과 왕비가 머물렀음.
- 태종 16년(1416)에 다시 예천군이라고 하여 옛 이름을 회복함.
- 고종 33년(1896) 13도제 실시 때 경상북도 예천군이 됨.

[2] 예천군 서원

- 예천군의 서원으로 금곡서원(金谷書院, 1568년 건립 : 朴忠佐 · 朴訥 · 朴孫慶 배향) · 물계서원(勿溪書院, 1661년 건립 : 金方慶 · 金九容 · 金揚震 · 金應祖 배향) · 도정서원(道正書院, 1700년 건립 : 鄭琢 · 鄭允穆 배향) · 소천서원(蘇川書院, 1701년 건립 : 全元發 배향) · 옥천서원(玉川書院, 1711년 건립 : 林椿 · 潘濡 · 太斗南 · 宋福基 배향) · 인산서원(仁山書院, 1727년 건립 : 權孟孫 · 李文佐 · 權五紀 · 李光胤 · 金慶言 · 權壩 배향) · 노봉서원

(魯峯書院, 1794년 건립) · 고산서원(古山書院, 1839년 건립 : 李東標 배향) · 신천서원(新川書院, 1945년 건립 : 金英烈 배향)이 있음.

[3] 예천군 물계서원

-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1212, 강종 1~1300 충렬왕 26)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본연(本然).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김민성(金敏成)이며, 아버지는 병부상서(兵部尙書) ·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낸 김효인(金孝印)임.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김민성이 양육했는데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었다고 함. 고려 후기 행영중군병마원수, 도독사, 중찬 등을 역임한 재상으로, 삼별초 진압과 일본정벌로 널리 알려진 인물임.
- 예천군 감천면에 있었던 물계서원은 퇴계의 종손(從孫)인 이주도(李周道)와 유성룡의 제자인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의 주도로 충렬사와 물계정사(勿溪精舍)를 창건함,
- 김응조의 주도로 1661년(현종 2) 설립된 예천의 중심 서원으로, 김방경 등 4인(金方慶 · 金九容 · 金揚震 · 金應祖)의 선현을 배향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임.
-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문인을 교육한 옥성서원(玉城書院)과 퇴계 이황이 남긴 모훈(謨訓)에 따라 서악서원(西嶽書院)의 고사를 모방하여 물계서원 창설.
-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묘우(廟宇) · 강당 · 동재 · 서재 · 전사청(奠祀廳) · 신문(神門) · 정문 · 주사(廚舍) 등이 있었으며, 봄 · 가을에 향사를 지내왔음.
- 1661년(현종 2) 지역 유림의 공의(公議)로 김방경(金方慶) · 김구

- 용(金九容)·김양진(金揚震)·김응조(金應祖)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음.
- 김방경 등 선현의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으며, 지금까지 원전히 복원하지 못함.

• 현재 물계서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김방경 등 4인(金方慶·金九容·金揚震·金應祖)의 선현 뿐만 아니라 약포(藥圃) 정탁(鄭琢),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백범(白凡) 김구(金九) 3인을 추향하여 애국과 구국(극일)정신의 본산으로 삼고자 함.

• 예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교육체험관’의 설립 예정에 있음. 따라서 이와 연계된 유학사상과 선비정신을 고취시키고, 애국과 구국(극일)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발표의의

- 예천 물계서원의 오랜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 확보 및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을 위해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물계서원의 재인식과 역사적 가치를 중앙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함.

• 물계서원의 복원과 운영 방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함.

• 예천과 김방경과의 연고 관계 등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4인(金方慶·金九容·金揚震·金應祖)의 선현 뿐만 아니라 약포(藥圃) 정탁(鄭琢),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백범(白凡) 김구(金九) 3인을 추향하여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애국과 구국

- (극일)정신의 본산으로 삼고자 함.
- 물계서원을 통해 유교사상과 선비정신, 애국과 구국(극일)정신 등 군민의 역사문화유산 홍보와 교육, 관광 콘텐츠화 활용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됨.

• 물계서원의 원전한 복원을 통해 관련 사실의 역사성을 대중서 혹은 교과서 수록, 관련 유적을 연계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 지역민을 위한 예천의 서원 배향 인물 강좌 개최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의 모색 필요함.

• 또한 예천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민족체험전시관’과 연계된 김방경·김응조·정탁·유성룡·김구 등의 애국정신과 구국(극일)정신의 역사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고취를 위한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 및 내용

- 사업개요

주제：예천 민족교육체험관 조성 사업에 따른 ‘물계서원(勿溪書院) 복원과 운영 방향’
- ▶일시：2025년 11월 11일 (화)

▶장소：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시간：오후 13:00 ~ 18:00

▶주최：물계서원복원추진위원회

▶주관：국회의원 김형동, 김용만 의원실

▶대상：문중 및 지역주민 150명, 발표자·토론자 등 관계자 30명 [총 180명]

- 추진일정 2025년 11월 11일(화) 13:00 ~ 18:00

시간	식순	내용
	1부순서	사 회：김태영 (안동김씨대종회 사무총장)
1:00~1:30	개회식	• 개회사：조윤 예천문화원장(추진위원장) • 환영사：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장 • 축 사：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 • 내빈소개：국회의원 - 김영환·김성희·김용만 등
1:30~1:40	장내정리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2부순서	사 회：홍영의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1:40~2:20	1주제 발표	기조강연：고려후기 김방경의 삶과 대외인식 (박종기 국민대 명예교수)
2:20~2:50	2주제 발표	김방경의 학문과 詩的 세계관 (심경호 고려대 명예교수)
2:50~3:00	휴식	휴식 및 장내 정리
	3부 순서	사 회：홍영의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3:00~3:30	3주제 발표	김구용의 삶과 對外觀 (이형우 인천대 교수)
3:30~4:00	4주제 발표	김방경의 内外孫 인물의 활동 (追配 論議) (신채용 국민대 강사)
4:00~4:30	5주제 발표	물계서원의 복원 방향과 운영 전략 (백옥련 광주 광산구 학예팀장)
4:30~4:50	6주제 발표	예천 민족교육체험관 조성에 따른 운영방향 (곽재관 예천군 문화관광과 주무관)
4:50~5:00	휴식·다과	휴식 및 장내 정리
	종합토론	좌 장：박종기 (국민대 명예교수)
5:00~:6:00	종합토론	• 2주제 토론：남인국(전 경북대 교수) 예정 3주제 토론：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예정 4주제 토론：이근호(충남대 교수) 예정 5주제 토론：조준호(실학박물관 팀장) 예정

능동 영정각, 회곡동 유허비각 기와 보수



▲회곡 수해복구공사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회곡동 관리사 뒤편의 수해 복구 공사가 마침내 완료됐다. 당초 안동시에서 복구를 담당하기로 했으나, 연말 정치 상황과 연초 안동-의성 지역 산불 발생 등의 영향으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졌었다. 이에 대종회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자체적으로 복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복구 공사는 흘러내린 흙을 걷어내고 효율적인 물 빠짐 수로

를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가적인 수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공사에는 상락재 옆에 위치했던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관리사 외부에 수세식 화장실을 신설하는 작업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과 더불어, 우리 문중의 문화유산인 유허비각과 능동 영정각의 노후화된 기와 보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번 보수 작업은 두 건축물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곡동 유허비각은 그간 기와가 흘러내리고 서까래 및 처마가 노후화되어 건축물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능동 영정각 또한 처마의 기와가 내려 앉고 흙이 빠져나와 즉각적인 보수가 시급한 상태였다. 한옥은 특성상 작은 손상이라도 방치하면 건잡을 수 없이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보수 작업에서는 유허비각과 영정각의 기와를 보수하고, 외구토를 새로 채워 기와의 밀착력을 높였다. 또한, 썩은 목재 부분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모든 공사는 천공석재에서 시공을 맡아 진행하였다.



▲회곡 수해복구공사



▲능동 영정각 기와보수



▲회곡 관리사 외부 화장실 수세식으로 개조



▲회곡 유허비각 기와보수

충렬공 김방경 논문『북악사론 21집』에 등재



북악사학회(北岳史學會, 회장 한준수)는 국민대학교 홍영의 역사학과 교수가 2025년 1월 발표한 논문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의 당대, 사후 후대 평가와 의미’를 『북악사론 21집』에 등재했다.

논문은 지난 2024년 2월 16일 예천 물계서원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김방경(金方慶)과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위

상에서 발표한 ”김방경의 사후 후대 평가의 의의“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홍영의 교수의 이번 연구논문집은 김방경의 89년 생애를 23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했다. 13세기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서 나라 안위를 걱정했고,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건의 중심에서 일관된 삶을 살았다. 고려 왕조의 유지와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한 그의 실천적 행동을 우리는 오늘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귀족의 의무를 다한 인물로 평가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천안교육지원청과 MOU 체결… 학생 호국정신 함양 앞장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 이하 충민기념사업회)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 지역 학생들의 호국정신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 지역 학생들이 나라 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과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천안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애국충절 및 호국정신,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활동 협력, ▲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교육 활동 추진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충민기념사업회 김법혜 회장,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김태영 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병도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천안 지역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법혜 충민기념사업회 회장은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이병도 교육장 이하 모든 교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인 천안 시민들이 장군의 업적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교과서에 김시민 장군의 업적을 실어 역사의식에 대한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충민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대첩의 승전지인 진주시는 김시민 장군을 추앙하고 있고, 충북 괴산은 지역 교과서에 장군의 업적을 실어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인 천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장군의 업적과 애민 애국 사상을 배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김법혜회장』

김신 장군 9주기 추모식 엄수



대한민국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고(故) 김신 장군의 9주기 추모식이 5월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거행됐다. 김신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이영수 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참모총장들, 그리고 김두만 제11대 공군참모총장(김신장군기념사업회장)과 유족 대표인 장녀 김미 여사(백범김구기념관장), 사위 김호연 (주)빙그레 회장(공군역사재단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뜻을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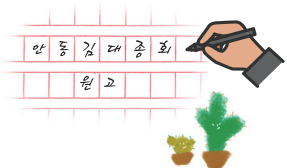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신 장군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1944년 중국 공군군관학교에서 기초군사교육을 수료

하고, 1946년부터 1년 간 미 공군 랜돌프 기지에서 정식 비행훈련을 받으며 조종사의 꿈을 키웠다. 광복 후인 1948년에는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2기로 임관하여 이듬해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크게 기여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 조종사로 참전한 김 장군은 지리산 공비토벌 항공작전, 대한민국 공군 단독 출격 작전 등 총 19회의 전투출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눈부신 전공을 세웠다. 특히, 공군 3대 전승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1952년 1월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에서는 작전 책임자로서 '저공침투비행'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우리 공군은 단 세 차례의 출격 만에 작전을 성공시키며 한국 공군의 전투 기량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김신 장군은 전역 이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 교통부장관, 제9대 국회의원, 그리고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직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고인은 2016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으며, 장례식은 공군장으로 엄수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고 김신 장군은 생전에 안동김씨 대종회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보명(譜名)은 신(信), 일명 태신(泰信)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안동김씨 문중에서도 태영(泰榮) 대종회 사무총장, 영수(榮秀) 전 익원공파 회장, 태연(泰連) 익원공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했다. 김신 장군의 삶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후세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대종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 출 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국립중앙도서관, 문중 고문헌 기증 활성화 워크숍 개최..

- 태영 사무총장 주제 발표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희섭)은 6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하남시 고운최치원도서관(경주최씨중앙종친회 소속)에서 한국성씨총연합회와 함께 '문중 고문헌 소장 현황 및 기증 유치 사례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개회사와 석민영 한국성씨총연합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진 첫 번째 순서에서 안동김씨대종회 태영 사무총장이 '안동김문의 고문헌 수집과 기증 과정'을 주제로 40분간의 발표를 마쳤다.

안동김씨, 귀중한 고문헌 국가 기관에 기증하며 보존 노력

태영 사무총장은 발표에서 안동김문은 일찍이 충렬공 묘지석, 삼소재 소장 고문서 2천여 점, 안동김씨성보(경진보), 보물 제1830호 김명리 묘지호, 문영공 김순 묘지석, 효헌공(휘 찬) 고문서 일괄, 경현 김효건 고문서 일괄 등을 박물관 등 국가 기관에 기증했음을 밝혔다.

태영 사무총장은 안동김문의 개괄적 소개와 함께 충렬공(휘 방경)을 중시조로, 근대 인물로는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을 소개했다. 또한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와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를 소개하며 문중의 역사 보존 및 선양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안사연'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행적이 없는 조상을 칭찬하면 거짓이고, 조상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지 않는다면 밝지 못한 것이며, 그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어질지 못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군자의 부끄러움이다."라는 '예기(禮記)'의 글귀를 인용하며 선조의 미덕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는 충렬공 김방경 중시조를 선양하는 단체로, '충렬공김방경자료집성', '경현김효건선생문집', '익원공김사형자료집성', '역주 척약재학음집' 등을 출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1년 간행된 '금석집첩 안동김씨편'은 일본 교토대학 소장 탁본을 찾아 탈초 및 번역하고 939건의 한국 역사 인물 금석문 목록을 작성한 대규모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익원공(휘 사형)께서 1402년에 제작하신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지명연구서 발간과 복제본 제작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 '안동김씨 문고' 조성 추진

태영 사무총장은 고문서 수집 및 기증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2021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봉성기, 김효경 연구관이 대중회관을 방문해 대원군 박해 순교 천주교 신자 족보 기록을 찾던 중, 김효경 연구관이 안동김문의 족보 및 고문서를 전문 기관에 영구 보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관은 기증된 고문서가 복사본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종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의 권유에 따라 김석한 대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족보의 영구 보존이 미래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아 기증을 결정했다. 이에 2021년 4월, 1739년 간행된 '기미보' 전 9권 및 이본 수권 1권(총 10권)과 1825년 간행된 '을유보' 전 30권 등 2종 40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됐다.

기증식에 앞서 김태영 사무총장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안동김씨 문고' 설치를 제안했다. 김효경 연구관으로부터 1910년 이전 자료 100점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대중회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문헌 수집 안내를 게재하며 종인들의 자료 기증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15일, 안동김씨대종회가 수집한 고문헌 자료 595점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기증 고문헌,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 기대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과장 대행은 "안동김문에서 소장해 내려오던 전적과 전국 종인들이 전해오던 고문헌 595점이라는 매우 많은 수량의 자료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고문헌 자료들은 소독, 향온, 향습 등 보존 처리 후 '안동김씨 문고'에 전시되어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증된 주요 자료로는 족보, 문집, 교지, 간찰, 시고 등 595점이며, 시험 답안지, 예조 입안 문서, 완문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조가 1764년 8월 15일 명릉 배알 후 12세 왕세손(정조)을 만나 감동하여 지은 시와 왕세손이 화답한 '영은경희록', 그리고 영의정 홍봉한, 우의정 김상복 등 31인의 신료들이 갱진하고 홍봉한이 기록한 '어제갱진첩'은 '영은경희록'과 함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됐다. 이외에도 김몽린의 '낙애행적', 김주의 '우암집', 1777년 정유 '사마방목' 등이 주목할 만한 자료로 소개됐다.

태영 사무총장은 안동김문의 고문헌이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이에 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고문헌 기증 활성화 위한 다양한 발표 이어져

태영 사무총장의 발표 이후에도 고문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녕김씨 충의공과 김수동 부이사장은 '나의 고문헌 기증 동기와 기증 추천 사례 소개'

동래정씨종중 정용주 총무이사는 '동래정씨 종중의 고문헌 집대성 사례와 기증 문헌 복원·관리의 과제' 경주김씨중앙종친회 김성환 이사는 '경주김씨 고문헌 발굴과 계보 연구의 시대적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정진웅 학예연구사는 '당신의 아름다운 결정,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정효 학예연구사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소개와 활용법' 등을 발표했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워크숍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라며, "안동김씨 문중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

기증 유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동김씨 문중에서 기증해 주신 고문헌에 대해 명패 제막, 전시, 디지털화 등 다양한 형태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문중 고문헌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김씨 문고는 금년 10월 설치 예정이다.

『대중회 사무부총장 발용』

포천아트밸리에서 만나는 세계적 조각가 김광우 미술관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아트밸리로 234
- 운영시간 : 09:30~17:30
- 휴관일 : 매주 첫째 주 화요일
- 관람료 : 무료

원로 조각가 故 김광우 前 동아대 교수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로서 예술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포천 출신의 원로 조각가 김광우 전 동아대 교수는 국내 작가와 평론가들은 물론 미국 초대전에서 뉴욕타임스가 극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조각가로 널리 알려졌다.



중구 정동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인 정동제일교회가 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가 1885년(고종 22)에 세운 감리교회이다. 이 교회 마당에는 김광우 교수가 1995년에 조각한 초대 아펜젤러 목사와 1997년에 제작한 2대 최병헌 목사 2분의 흉상이 있다.

조각가 김광우 교수는 197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50여 회의 국내외 초대전과 제5회 부산문화대상, 2005년 대통령 표창, 2006년 홍조근정훈장 등 화려한 수상경력과 4회에 걸

친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전체 컨셉과 전시감독을 맡는 등 한국 예술계의 거장이다.



▲정동제일교회 초대 아펜젤러 목사 ▲정동제일교회 2대 최병헌 목사

김광우 교수는 “전쟁과 분단의 역사 현장이자 38도선 접경지역인 고향 포천에 평화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꿈”이라며 역대 노벨상평화상 수상자의 동상을 건립한 조각공원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포천의 관광콘텐츠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서 1941년에 문온공(휘 구용)의 21대손으로 태어난 조각가 김광우 교수는 포천에서 중·고교를 거쳐 홍익대 미대를 나와 서울 진명여고에서 미술교사를 역임했다.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원대 교수와 부산 동아대 교수, 예술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27년간 교수로 활동했다. 2021년 8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계보]

문온공 구용-명리-맹헌-자양-예생-윤종-진기-대섭-확-정지-환-경복-가신-철-이인-의운-학렴-상혁-주묵-재형-흥만-조각가 광우-항진-현서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5.28.~2025.08.26.)

◎ 부회장회비

- 30만원 : 【군】재이(강진) 【부】원호(광명) 【문】윤만(구로)
【제】윤철(성북), 한용(청주) 【정】수선(부산)

◎ 이사회비

- 20만원 : 【군】재강(강서), 덕회(중구) 【문】건(강동)
【제】태시(천안) 【按】사부(청주)
【익】인회(강릉), 재화(경기화성)

◎ 통상회비

- 10만원 : 【대】태균(용산) 【按】태선(고양)
- 5만원 : 【도】재진(안산) 【익】정묵(경산),복술(대구)
- 3만원 : 【익】기동(기식, 중랑) 【정】봉완(세종) 【?】태현(?)
- 2만원 : 【익】한영(진주), 대진(남양주)

◎ 평생회비

- 30만원 : 【익】차회(대전), 태영(청주)

◎ 찬조금

- 1십만원 : 【군】수웅(동대문) 【부】규선(동대문)
【익】순식(청주) 【?】진회(태백)

◎ 광고비

- 3십만원 : 동서문화사 김원희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STB 상생방송 '한국의 성씨' 안동김씨 편 방영



평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정벌하는 등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또한 안동김씨는 많은 무인을 배출한 명문가로도 유명하다. 역대 충무공 9명 중 2명, 삼도수군통제사 10명이 안동김씨 출신이다.

김방경의 손자 김영돈과 김영후, 척약재 김구용, 두문동 72현 김사렴, 대마도 정벌 김사형,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 영원산성 김제갑, 다독가 시인 김득신 등이 있다.

현대사에서도 안동김씨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이 대표적이다. 그는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한 애국단과 광복군을 창설하는 등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또한, 포항제철 설계자 김재관 박사와 경부고속도로 설계자 김용희 박사 등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도 안동김씨 가문이다.

또한, 단순히 역사적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안동김씨 가문에 대한 정보도 다루었다. 2015년 인구 조사 통계, 15개의 주요 종파, 대표적인 집성촌 등 안동김씨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가문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시대정신을 이끌었던 안동김씨 인물들의 삶을 조명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방영된 내용은 유튜브에서 '한국의 성씨 안동김씨'를 검색하면 다시 볼 수 있다.

2025년 8월 26일, STB 상생방송의 '한국의 성씨' 프로그램이 안동김씨 편을 방영하며 우리의 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내연 PD가 연출한 이번 방송은 안동김씨의 개괄적인 역사와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지난 13일 안동 능동재사와 모역을 촬영했으며, 21일에는 대종회관을 방문해 태영 사무총장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태영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안동김씨의 역사와 주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신라 경순왕의 손자 김숙승을 시조로 모시며, 특히 고려의 재상 김방경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김방경은 원나라 간섭기에 삼별초를

안림사공파종회, 오창 영모재로 사무실 이전 ... 탄신 700주년 맞이 준비 본격화



실과 자료보관의 용이성을 강조하며, 파종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석한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수도권 종회 태운 회장, 진천훈종회 등 다양한 종회 대표들도 축하의 화분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용원 사손, 문영공종회 태성 회장, 태철 총무이사, 봉진 재무이사, 제학공파 성호 회장, 석웅 사무국장, 익원공파 태연 사무국장, 청주, 여주, 세종, 괴산 등 각지에서 참석한 40여 명의 종친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행사 후에는 무더위 속에서 복달임 오찬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오랜만의 만남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림사공파종회는 이번 사무실 이전과 함께 오는 탄신 700주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파의 발전과 종친 간의 소통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림사공파종회 용국 사무국장』

안림사공파종회가 2025년 8월 2일 사업 활성화와 종친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오창 영모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그간 충무로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며 오온 김사렴 600년사 발간, 안동김씨 역사탐방 수련회 개최, 안림사공 모역 향토문화재 지정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활성화와 종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전을 결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종친과 내빈이 참석하였다. 형남 파종회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어서, “이번 사무실 이전은 안림사공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안림사공파의 본산인 오창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며, 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태성 문영공파 회장, 제학공파 법회 스님, 영만 고문, 선회 명예회장 등 여러 내빈이 축사를 맡았다. 축사에서 이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사무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 8. 22. 기준)

3천만원	【翼】· 석한-대종회장	30,000,000
2억원	【翼】· 수원 판결사공종중	200,000,000
1천만원(6명)	【文英】· 문영공종회【都】· 봉회-명예회장【文】· 파종회【按】· 형남-파종회장【翼】· 파종회·수원 참의공종중	60,000,000
7백5십만원	【書】· 파종회	7,500,000
6백만원	【按】· 태성-문영공회장	6,000,000
5백만원 (11명)	【郡】· 준회-파종회장·파종회·광탄종중·칠정문중【부울경】· 부산.울산.경남종친회 【文】· 영환-총렬공기념사업회장·참의공종중-완주【按】· 파종회【翼】· 목사공종중·부령공종회·효소공종중	55,000,000
3백만원(6명)	【郡】· 평택자산공종중【文】· 경기광주문중【都】· 파종회【提】· 파종회(생원공)【翼】· 효헌공종중·실경-대구종친회 고문	18,000,000
2백만원 (10명)	【郡】· 장안종중【文】· 포천별제공종중【安】· 파종회,【按】· 소윤공(지주사공)종회【安東】· 안동종친회 【翼】· 재용 고문·재남 고문·문정공종회·정묵-전대구회장·거석(종회)	20,000,000
1백3십만원	【郡】· 재근-부안	1,300,000
1백1십만원	【文】· 재만-대구	1,100,000
1백만원 (45명)	【郡】· 성묵-인천·재이-강진·중회-부산·태영-사무총장·원회-김제·승남-광탄 【典】· 처사공종회·재윤-전파종회장【副】· 원호-파종회장 【文】· 윤만-파종회장·왕용-포천·용구-광진·영옥-광주·음성공종회·동철-이천 【正】· 파종회·수선-파종회장【大邱】· 대구종친회【都】· 항회-대구화랑·수도권종회【大】· 파종회-보성 【提】· 태한-문영공회장·수도권종회·규원-파종회장·일응-주에스토니아대사 【按】· 영만-진천·철회-안양·선희-전파종회장·태운-대종회부회장 【翼】· 윤묵-효소공회장·영수-파종회장·태신-중구·재택-논산·재영·태철-수원·강릉종회·수돈(영흥사) · 영화·화자·옥늬-대구·성희-부여·강식-하남·수원봉직량공종회·관식-인천·진식-영주	45,000,000
7십만원	【文】· 수길-대구종친회장	700,000
6십만원	【文】· 호길-대구종친회 고문·신묵-남양주	1,200,000
5십만원 (38명)	【開】· 이경-파종회장【郡】· 양천종중회·덕회-서울【副】· 영식(춘식)-대구【文】· 재극·재관-음성 【都】· 정-수도권회장·원중-법무사【大】· 태권-파종회장【提】· 용식-의정부【按】· 서령공종회-증평·용주-남양주 【翼】· 주식-영주·진섭-대구·진수-동대문·태연-인천·수인-고창·형식-안산이목종친회 · 관찰사공종중-동두천·인회-강릉 【書】· 각영-파종회장·덕영-강동·규상-시흥·주일-안양·상호-강남·세영-일산·규삼·주현-廣州 · 무영-송파·규석-중랑·정수-안양·관영-양평·석영-성남·수영-용산·주형-서초 【正】· 태형(성립)-춘천【골프】· 안동골프회·인천종친회	19,000,000
3십만원 (31명)	【郡】· 희동·성대-정읍(형제)【典】· 헌덕-대종회 감사【副】· 규훈-철원【文】· 영운-廣州·재원-포항 【都】· 회수-중랑·희운-대구·창회-의성·원회-동서문화【提】· 재삼·석응·태완-천안 【按】· 사부-청주·용원-세종·태선-고양 【翼】· 동회-석한회장 子·광일-안동 동수 子·원회-논산 재택 子·근식-동대문·경식-이천·태용-용인 · 선희-당진·나주종친회·순회-영주·성우·재준·재석·재돈-대구·재환-보은·유묵-강릉	9,300,000
2십만원 (29명)	【開】· 복순-이경회장 동생【郡】· 발용-하남·정화-구리【大】· 성무-보성 【文】· 태경-구로 윤만 子·천만-廣州·증평도사공종중·주회·명회-포항 재원 子 【都】· 옥수-파종회장·시걸-부산·정수-동대문·태성·재선-사춘·영복-의성 【提】· 덕응-공주·태영-수원·정환-제주·석응-천안 【翼】· 하경-석한회장 女·호묵-대구 영화 子·재진-당진·준식-수원 태철 子·종빈-의정부 영수회장 子 · 재천-홍천·재교-안동회장·종묵-대구문경공회장·우회-논산 재택 子	5,600,000
1십5만원	【翼】· 진현-안동	
1십만원 (61명)	【郡】· 대용-용인·만화-파주·필구(범직)-홍성·준용-인천·봉회-안양·재신-음성·수웅-동대문 【文】· 재성-음성·태식-도봉·동호-양주 윤식 父·윤식-양주·태길-안산 · 윤희·윤정·윤미-대구 재만 子女·재덕(순오)-음성·정호(한회)-전주 【都】· 재수·원회-의성【大】· 재남-나주·태종-광주·성무-보성 【典】· 진회-대구【提】· 윤철-성북·대응-천안 【按】· 봉진-성남·용국-여주·용주-용인·용회-인천·태용-여주·범식-서울 【翼】· 태진·태경·진경-석한회장 孫·보회-수원 재영 子·선희-강화·경민-대구·루아-영화 부회장 손녀 · 철회(예천)·기범-동대문·홍교·시교-대구·선교-수원·동수·지원·태은-논산 재택 孫 · 상희·철우·재옥·재정·재춘·재진·재규-대구·기수·화성·만천-원주·용관·대현·세훈-고창·동회-서울 【正】· 수진-남양주·경랑-김포	
5만원(5명)	【文】· 동묵-음성【提】· 재응-광진【翼】· 정화-대구·재성-무주·태현-덕적도	250,000
3만원(3명)	【按】· 태길-은평·영화-청주【翼】· 재남-대구	90,000
합계		486,290,000

성금 모금 계좌안내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종회 ※ 반드시 소속(파)과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시고 대종회 02-2244-37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유림을 잇는 마지막 선비, 동천 김창회 고문 타계



유림(儒林)을 잇는 이 시대의 선비, 영남(嶺南)의 큰 교육자인 동천(東泉) 김창회(金昌會) 안동김씨 대종회 고문께서 8월 6일 오전 노환으로 타계했다. 91세에 별세로 전통 한학(漢學)을 바탕으로 시를 짓고 문학·역사·철학을 통섭할 수 있는 유림의 학예일치 세대는 막을

내렸다.

1935년 경북 의성 사촌마을에서 18세기 영남유학을 대표하는 학자 천사 김종덕의 7대손으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한학자 집안에서 엄정한 가르침으로 배운 성리학과 한문에 대한 조예는 한시를 짓고 한문으로 논(論)과 설(說)을 펼 수 있었다.

제자들에게는 늘 "검손은 모든 배움의 시작이며, 수양은 죽는 날까지 멈춰선 안 된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그의 삶 자체로 증명됐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그는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고인께서 활동하던 청우회(淸愚會) 회원들과 성균관 유림들은 만사(輓詞)를 통해 "동천 선생의 서거로 영남의 큰 별이 졌음을 애통해 하며 선생의 아름다운 자취를 누가 이을건가"라고 하면서 "고인은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라 시대를 일깨운 지혜로운 스승이자 거목이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향리에서 교육행정공무원을 역임하고 경북도립의성도서관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박약회 중앙회 부회장, 의성향교 전교, 성균관 부관장, 임고서원·도남서원·빙계서원 등의 원장과 의성 문소 선비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의성신문 주필로 활동했다. 이후 국사·

향토사·한학에 천착하며 전통 학문의 현대적 계승에 몰두했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14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유교 강의는 지금도 교육계에 회자되고 있다. 상훈으로는 옥조근정훈장 수훈, 경북 유림대상 수상, 경상북도문화상 수상, 의성군민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사촌(沙村)세거 약사』, 『동서명언 선집』, 『넓은세상 좁은마음』, 『빛지고 저승가기 싫다고한 시골노인』등을 남겼으며, 의성신문에서 발행한 『대추꽃 예찬』과 의성문화원에서 발행한 문집 『동천산고(東泉散稿)』를 남겼다. 녹전의 충렬공(휘 방경)을 제사하는 '능동재사 상량문'과 경상북도 신청사 '상량문'을 남겼다. 동천 선생께서 지은 '과상락대유감(過上洛臺有感)' 시비가 안동 '상락대(上洛臺)'에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선생 시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과상락대 유감(過上洛臺有感)

白日依山斜城樓 千里洛江入海流 孔明有桑子孫計 廉官菲菜退庭愁
將相勳業功可惜 茶丘猛拷恨千秋 削立馬巖百尺高 石臺澄潭將悠悠

“밝은 햇살 산에 걸려 성마루 넘고
천리의 낙동강은 바다로 흘러가네.
제갈량은 뽕밭 가꾸어 자손계책 하였고
청렴한 관리[上洛公]는 물러나 부추를 가졌네.

출장입상(出將入相) 높은 훈업 공적도 아깝고
홍다구(洪茶丘)의 모진 고문 천추에 한이더라,
각아지른 마암 바위 백척(百尺)이나 높이 솟고
석대[上洛臺]와 맑은 소는 천고에 유유하네”

영남의 한문학과 역사학에 관련된 학자라면 직·간접으로 동천선생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고,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 왔다. 유족으로 부인 김순섭(金純燮, 풍산인) 여사와 아들 경제학박사 김태진(영남대교수)씨를 비롯한 3남 1녀가 있다.



〈가계〉 구정(도평의공파조)-자첨-효온-극해-광수(송은)-당-세우-사원(만취당)-준-상린(양진당)-현좌-이모-남응-종덕(천사)-경진(성탄)-양관(금주)-영유-수욱(좌산)-주종(일암)-호균-창회(동천)



카렌다 주문제작

합리적인 가격,
빠른 제작으로
2026년을 계획하세요~!

벽걸이, 숫자판, 탁상용
기업용, 관공서, 다이어리

☎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동서문화
DONGSEO CULTURE

서울 중구 충무로25
02)2277-1013, 010-9047-4143
웹하드 / ID-ds3200, PW-ds3200
Email / dsc3200@naver.com

(주) 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종합문화재수리업 01-16-0042호

경장대(경상북도 경찰청 내)

대표 고담
김진식(익원공파)

문화재수리 기술자(보수1862호)
경상북도 명장 (건축목공시공)
대한민국 신지식인(16-035)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수4459호)

경북 영주시 영주로 250 (3F)
Tel. (054)636-1239
Mobile. 010-3507-1239
E-mail : 0103507kim@hanmail.net

안동김씨대중회, 국회의원 간담회…뿌리의 중요성 되새겨



지난 7월 9일 정오, 여의도 일식당 해초가에서 안동김씨대중회와 안동김씨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미 있는 오찬 모임이 있었다. 이번 만남은 의원들의 당선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축하를 겸하는 자리였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희(경기 고양시갑) 의원과 김용만(경기 하남시 을) 의원이 참석했으며, 대중회에서는 석한 대중회장을 비롯해 영환 판서공 회장, 윤만 문온공 회장, 형남 안렴사공 회장, 재영 고문, 태철 이사, 태영 사무총장, 발용 부총장이 함께했다.

석한 대중회장은 두 의원에게 의정활동 중에도 선조의 일과 뿌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동김씨의 숙원 사업인 물계서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종친회의 오랜 염원을 전했다. 아울러, 대중회에서 발간한 ‘안동김씨순례기 1, 2권’ ‘김방경과 예천 물계서원의 위상’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에서 출간한 ‘충렬공김방경자료집성 축약본’ ‘역주 척약재학음집’ 등 조상 관련 서적 몇 권을 전달하며 틈틈이 구독할 것을 권유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시종일관 대중회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뿌리에 대해 깊이 알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바쁜 의정활동으로 아쉽게 불참한 김영환(경기 고양시정) 의원과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은 추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검손과 협력의 미덕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우리 인생에서 길흉화복처럼 선거 결과의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기술과 출구조사 방법이 발달했어도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6.3대통령선거 결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득표율은 반반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행정명령 제1호는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목표와 시행 방안은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시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반면에 국민은 계엄과 탄핵으로 추락한 총체적인 국면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성공이란 역경을 겪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인들은 겸손하면 형통하고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교만함을 미워하고 겸손함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

언행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교만하면 대화 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협력의 미덕이 중요합니다. 협력이란 성심껏 지지하며 전심전력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마치 붉은 꽃도 푸른 잎이 있어야 두드러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미덕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에 각자 개성에 따라 적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제각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직이나 집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협력의 미덕은 우리의 사고와 생활에서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미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회복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협력을 미덕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여야겠습니다.

『(典) 흥식 대중회 고문』

*본 기사는 흥식 대중회 고문이 평산·무송 유(庾)씨 회보(2025. 7. 15)에 기고한 글입니다. 평산·무송 유씨는 고려의 개국공신 충절공 유금필 장군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성씨입니다.



군사공파 장안중중, 대중회에 에어컨 기증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인 지난 6월, 군사공파 장안중중(회장 준목, 총무이사 장목)이 대중회에 최신형 에어컨(2백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으로 올여름 대중회 사무처 직원들과 대중회를 방문하는 종친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

게 되었다.

그동안 대중회 사무실은 냉방 능력이 부족한 오래된 에어컨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지내왔다.

이에 장안중중은 대중회 사무처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최신형 에어컨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군사공파 장안중중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낙애행적의 진중시



《낙애행적(洛厓行蹟)》은 병자호란 때, 광주(廣州) 쌍령전투에서 순절한 낙애 김몽린의 행적을 수록한 목판본 3권 1책으로, 1862년도에 방예손(傍裔孫)인 종군(宗君) 김영락(金英洛)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조참판 이의익(李宜翼)의

서문(序文)과 지부(知府) 심동신(沈東臣)의 발문(跋文), 그리고 8대손 김영수(金永受)가 쓴 후발(後跋)이 있다.

김몽린(金夢麟, 1584~1636)의 자는 성서(聖瑞). 호는 낙애(洛厓). 상락공 김방경(金方慶)의 후예로 익원공 김사형(金士衡)의 9대손이다. 1621년 동생 몽웅(夢熊)과 함께 무과에 급제한 뒤, 안동 감영의 영교(營校, 장교)로 있을 때인 1637년(인조 5) 겨울, 아우 몽웅과 함께 고을의 병사를 규합하여 광주(廣州) 쌍령전투(雙嶺戰鬪)에 참전하여 청나라 군사와 3일 동안 교전하며 대치하는 동안 적 수십 명을 죽이고 포위되어 1월 3일 장렬히 전사했다.

낙애 김몽린의 진중시

소개하는 시문은 병자호란의 전쟁터에서 지어진 진중시(陣中詩)로 《낙애행적(洛厓行蹟)》에 수록되어 있다. 무인(武人)으로서 죽기를 각오한 군은 결의, 충성심, 효심 등이 잘 드러나 있는 우국시(憂國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적에게 포위된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절박(切迫)한 순간 죽음에 임해서 지은 임절시(臨絕詩)는 보는 이로 하여금 비분감개(悲憤感慨)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낙애행적》에 나타난 진중시는 임절시(臨絕詩)와 칠언절구 5수가 전해지고, 낙애공이 8세 때 지은 오언절구 1수와 향리인 영가(永嘉=안동)에 있을 때 지은 오언절구 3수와 칠언절구 1수를 포함한 총 11수가 기록되어 있다.

전쟁의 참혹함과 관련된 문학 작품으로서, 당시의 전장(戰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무인(武人)의 정신과 낙애공의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❶죽음에 임해서 지은 시 臨絕詩

白日臨頭上 丹心隨劒下 未成下句而命絕
백일임두상 단심수검하 미성하구이명절

밝은 태양은 머리 위에 비추고
붉은 마음[丹心] 칼 밑을 쫓네!

... ..

상구(上句)만 읊고 하구(下句)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진중에서 목숨을 바쳤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와 태연히 죽음을 맞아들이는 비장함, 이 같은 우국충정에도 불구하고, 낙애 김몽린의 행적에 대해선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❷감회가 일어 진중(陣中)에서 시를 짓는다. 有懷題壁

老柏蒼鷹能擊殿 陰厓隱豹久磨精 土遇盤根爲利器 十年霜刀入鞘鳴
노백창웅능격전 음애은표구마정 사우반근위이기 십년상도입초명

늙은 잣나무의 큰 매는 전각을 공격할 듯 기세등등하고
그늘진 언덕에 숨은 표범은 오래도록 정령(精靈)을 닦고 있네

선비는 위급한 시절을 만나면 쓸모있는 인물이 되는 법이건만
십 년 동안 간직한 시피런 칼날 칼집 속에서 울고 있네.

❸북방의 오랑캐가 도성(都城)에 쳐들어 왔다는 말을 듣고 聞北兵犯都城

落落長松倒壁上 殺身何日扶明堂 殘雉一髮危朝暮 嶺外孤臣劒氣張
낙락장송도벽상 살신하일부명당 잔치일발위조모 영외고신검기장

외로운 소나무 절벽에 거꾸로 서 있고
이 몸이 죽어 언제나 명당(明堂)을 바로 세울까?
상처 입은 평은 하루가 위태롭고
이 외진 곳의 외로운 신하 칼 기운만 장대하네!

❹전대교(前隊校)로 임금의 행차를 호위하며 형제가 함께 군중(軍中)에 있으면서 以前隊校發勤王行兄弟俱在軍中

鳥道旌旗凍不揚 此行同氣死生場 鐵衣如雪胡風冷 萬里妖氣一劍裝
조도정기동부양 차행동기사생장 철의여설호풍냉 만리요기일검장

새만 다니는 길에 군대 깃발도 얼어붙어 휘날리지 않으니
이 길은 동기(同氣, 형제)가 함께 죽어야 할 곳이라네.
갑옷은 눈같이 희고 오랑캐 땅에서 부는 바람 차가워라
만 리 밖의 사악한 기운에 한 자루의 칼을 챙긴다.

❺쌍령(雙嶺)의 진중(陣中)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雙嶺陣中憶老母

萱闈手線換鐵袍 爲忠爲孝兩難全 可憐爲國一死命 敢不甘心食下咽
훤위수선환철포 위충위효양난전 가련위국일사명 감불감심식하연

어머님이 지으신 옷 갑옷으로 갈아입으니
충(忠)도 효(孝)도 모두 제대로 하기 어렵구나
가련하구나!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할 운명이라
감히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

❻강화(講和)를 맺었다는 말을 듣고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다. 聞和議已成西望痛哭

我是我朝喬木臣 忍看城下結和親 男兒一死非難事 大義堂堂質鬼神
아시아조교목신 인간성하결화친 남아일사비난사 대의堂堂질귀신

나는 우리 조정의 교목(喬木)과 같은 신하거늘
차마 성 아래에서 화친(和親)을 맺는 것을 보는구나!
남아가 한 번 죽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니
당당하게 대의(大義)를 귀신에게 묻노라.

❼쌍령(雙嶺)의 진지(陣地)에서 지형이 불리함을 한탄하며 雙嶺陣歎地形不便

江盤峽束鐵甕如 伸縮干戈一屋廬 但聞將軍趨下令 無端兵馬一池魚
강반협속철옹여 신축간과일옥려 단문장군추하령 무단병마일지어

둘러친 강과 좁은 협곡(峽谷)이 철옹성 같지만
방패와 창을 휘두르다 보면 한 채의 집처럼 좁다네.
장군계선 명령을 내리는 일에만 바쁘다는데
병마(兵馬)를 연못의 물고기처럼 가둬두지 마시오.
이 진중시 외에도 《낙애행적》에는 수령(首領, 안동부사) 신준(申埈)

에게 보낸 2편의 간찰, 안동영장(安東營將) 선약해(宣若海)에게 올리는 편지, 경상좌병사 허완(許完)에게 쌍령의 진지에 대해 논의한 글이 있고, 8세에 지은 작품과 3편의 오언절구는 일찍이 학문을 성취하고 무예를 익히며 탁월한 기상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❶사기를 읽고…. ‘독사(讀史)’ (낙애공이 여덟 살 때 지은 오언절구이다.)

夷齊何等士 虞舜何如人 我是讀書子 願學兩聖人
이제하등사 우순하여인 아시독서자 원학양성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어떤 인물이었고
우순(虞舜, 순임금)은 또 어떤 인물이었던가?
나 또한 글을 읽은 유자(儒子)로써
두 성인을 배우고 싶구나!

❷가을날의 감회(感秋)

雨細波顏嘯 風高葉語淒 秋來志士感 仰見斗纏西
우세파안빈 풍고엽어쳐 추래지사감 양견두전서

가랑비에 수면(水面)이 흔들리고
바람 높아 낙엽 소리 처량하다
가을이 오니 지사(志士)의 감개가 일어
우리러 북두성(北斗星) 서쪽을 바라본다.

❸화산의 연적봉에 놀러 가서 遊華山硯滴峯 (병산서원 입구)

秋溪楓似錦 淵瀦水如藍 色色班衣好 裁出孝子衫
추돌풍사금 연축수여람 색색반의호 재출효자삼

가을이 깊으니 단풍은 비단 같고
연못의 물은 푸르기가 쪽빛 같구나
각양각색 색동저고리처럼 고우니
부모님 앞에 재롱부릴 옷이나 만들었으면

❹우연히 읊음 寓吟

大筮自有種 喬木詎無萌 丈夫許多事 轟雷白日明
대황자유종 교목거무봉 장부허다사 굉뢰백일명

커다란 대나무도 자연히 종자가 있는 법이니
높다란 나무라고 싹이 없을까?
대장부의 수많은 일들
우레 같은 명성이 백일처럼 빛나는구나!

【병자호란과 쌍령전투】

병자호란 은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1637년 1월 2일에 쌍령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청군에 대패하였으며 한국 역사 3대 패전 (칠천량해전, 쌍령전투, 현리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쌍령(雙嶺)’은 경기도 광주의 3번 국도 동쪽(현 곤지암)에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고개를 말한다.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던 인조를 구원하기 위해 경상좌병사 허완(許完)과 우병사 민영(閔楦)은 급히 군사들을 모집하였다. 상주영장(尙州營將) 윤여임(尹汝任), 안동영장(安東營將) 선세강(宣世綱), 그리고 안동 영교(營校) 김몽린(金夢麟)과 아우 김몽웅(金夢熊) 형제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출발하였다.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이들은 1월 2일 쌍령(雙嶺)에 도달하였고, 각각 허완과 민영이 이끄는 조선군은 고개 양쪽에 진을 쳐 목책을 세워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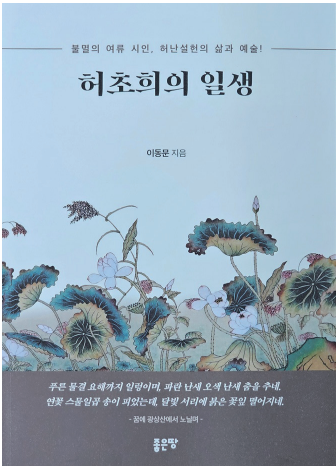
이에 남한산성 인근에 주둔하던 청군이 조선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약 30여 명의 기마병으로 구성된 척후병들이 쌍령의 목책에 다다르자 이를 발견한 조선군은 곧바로 발포하여 적 척후병의 사기를 꺾었다. 그러나 이 당시 조총에 숙련되지 못했던 조선군은 첫 발포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든 탄환을 거의 다 소진해 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청군이 조선군의 목책을 넘어 급습하였고, 이에 놀란 조선군은 탄약을 다 써버린 조총들을 내던지고 무질서하게 도주하기 이르렀다.

오직 안동 영교인 김몽린(金夢麟)만 끝내 도망하지 않고 “아직 오랑캐의 간을 도려내지 않았는데, 이 몸이 먼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는구나 未剪仇肝身殉國” 라고 탄식하며 목숨 바쳐 싸울 것을 외쳤다.

이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경상 병사 허완과 민영, 그리고 김몽린 형제 모두 장렬히 전사했다. 조선군이 궤멸된 상황에서 남한산성을 구원할 군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남한산성에서 40여 일을 버티던 인조는 결국 청 태종에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한 것이다.

『대종회 사무총장 태영』

소설 허초희의 일생 소개



안녕하세요? 안동김씨 대종회 사무총장님. 저는 《허초희의 일생》을 쓴 이동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허초희의 일생》은 조선 중기 천재 시인 허난설헌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그간 세상에 나온 허초희 관련 소설들은 한결같이 허초희와 김성립의 갈등을 이야기로 다뤘습니다. 시어머니를 못된 사람으로 그리고 김성립을 망나니로 그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더구나 허초희가 스승 이달과 염문을 뿌린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퍼뜨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허초희의 삶과 예술을 재구성했고, 김성립의 모습도 올바르게 바로 잡았습니다. 이 책이 안동김씨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읽혀 허초희를 할머니로 둔 안동김씨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허초희는 조선이라는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타고난 문재(文才)와 예술혼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이 소설은 허초희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인간적 갈등과 시대의 고통을 풍부한 상상과 사실감으로 입체화했습니다. 허초희의 어린 시절부터 피어난 문학적 감수성과 자의식이라는 내면세계가 전쟁과 이별, 자녀의 죽음, 가족과 헤어짐이라는 격동하는 외면세계와 충돌하는 모습을 촘촘히 그렸습니다.

허초희가 '문장으로 시대를 견딘' 여성임을 보여 주기 위해 탄탄한 고증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결국 독자는 허초희가 셰익스피어나 세르반테스와 버금가는 문학가임을 알게 됩니다. 모쪼록 이 책이 좋은 소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25. 7. 25 작가 이동문』

안사연 대마도 답사기

- 일정 : 2025. 5. 15(목) ~ 5. 18(토) 2박3일
- 인원 : 안사연 회원 22명 영환(부부), 도보익 · 엄화용, 영윤 · 태영, 태웅 · 강식, 태우 · 형식, 신묵 · 윤만, 재호 · 준희, 재중(부부), 영근 · 한수, 재삼(부부), 필규(부부)
- 여행지 : 쓰시마(對馬島)

안사연(安史硏, 회장 김윤만)에서는 해외 답사(9차)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우리 역사에서 여 · 원연합군의 고려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셨던 안동김씨 중시조 상락공(휘 방경) 선조님의 일본 원정로(遠征路)의 길목인 쓰시마(對馬島)를 답사했다. 이미 안사연에서 두 차례나 답사한바 있는 이키시마(壹岐島)-다카시마(鷹島)-하카다(博多)-다이자후(太宰府)를 잇는 노선의 완성인 셈이다.

쓰시마는 부산에서 49.5km, 후쿠오카에서는 142km 거리에 위치해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가 훨씬 가까운 섬으로 우리와 관련된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의 일본 원정로의 길목이었고 조선통신사들이 외교를 펼치며 일본을 오가던 징검다리였으며 일제강점기 조선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결혼과 항일운동으로 대마도에 유배되어 단식투쟁으로 순국한 최익현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출발한 씨플라워 호는 망망대해를 항해한지 2시간 40분 만에 이즈하라 항(厳原港)에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하여 곧바로 첫 일정인 사수우라(佐須浦)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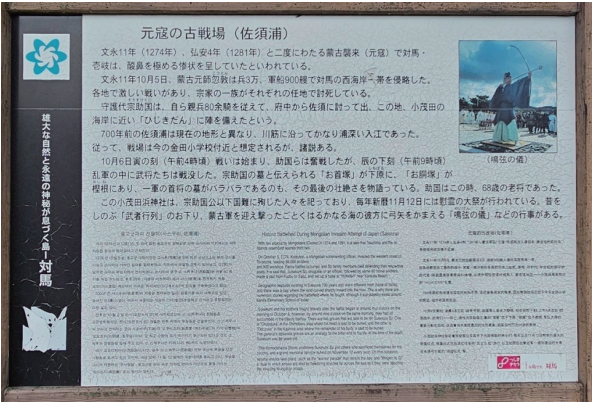


▲코모다 해변 (여원연합군의 상륙지점)

사수우라(佐須浦)는 현재의 코모다하마 해변으로 1274년 10월 5일 마산 함포를 출발한 약 900척의 함선과 3만 명의 여 · 원 연합군이 상륙했던 해변이다. 「팔번우동기(八幡愚童記)」라는 일본 사료에 따르면 당시 68세의 쓰시마도주 ‘소 스케구니(宗助國)’는 그의 무사 80명과 함께 이곳 코모다 해변에서 용감히 싸웠지만 모두 전사했다. 지금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코모다하마 신사(小茂田浜神社)를 건립했고, 소 스케구니(宗助國) 동상도 세웠다. 그리고 ‘원구고전장(元寇古戰場)’이라는 설명판과 ‘원구분전도(元寇奮戰圖)’ 그림이 그려져 있다.



▲코모다하마 신사 내부



▲원구 고전장 설명판

우리가 두 번째로 간 곳은 쓰시마(對馬島) 남부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는 야타테야마 고분(矢立山古墳)이다. 약 5세기에서 6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고분에서는 당시 고

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쓰시마가 단순한 지리적 경계선이 아닌 양국의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카미자카(上見坂)공원 전망대를 찾았다. 표고 385m의 전망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리아스식 해안(육지의 침강으로 생성된 해안)인 아소만이 눈 아래에 펼쳐지진다. 이 전망대 공원에는 덕혜옹주와 정략 결혼했다가 이혼한 소-다케유키(宗武志)가 지은 시비가 서있다.

쓰시마(對馬島)를 세계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던 대마도주 소(宗)씨의 꿈을 그리고 있다. 전망대 뒤쪽 산책로를 따라 돌아가면 공원 안쪽에 자리 잡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포대진지터와 100명의 병사들이 취사하고 취침했다는 막사 내무반과 병커, 평소에 4문의 포를 설치해 두고 병사들이 훈련하던 참호 등의 터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견고한 포대의 콘크리트 벽은 나무뿌리들이 침투했고, 당시 설치한 돌계단에는 파란 이끼들이 점령하여 당시 치열했던 태평양 전쟁의 역사를 엿볼수 있었다.

우리가 묵을 호텔로 향하는 길에 1919년에 창업한 백년이 넘는 쓰시마 전통의 가와치양조장(河内酒造)을 방문하여 창업기념관을 둘러보고 쌀과 누룩으로만 만든 쓰시마의 대표 술(対馬の酒)인 순미주(純米酒, 焼酒)를 시음하며 가업승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2일차는 하나의 섬이었던 쓰시마를 1900년 일본해군이 군함을 쓰시마 동쪽 해상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서쪽의 미우다만과 아소만을 잇는 인공운하를 건설하여 바닷길을 단축시킨 역사의 현장에 붉은 아치형 다리를 놓아 관광지로 만든 '만제키바시(萬關橋)'를 건너서 상대마도(上對馬島)와 하대마도(下對馬島)로 나누어진 인공운하 '코후나코시세토(小船越瀬戸)'를 답사했다. 슈시강 '삼나무 숲길'를 지나 일본 환경성이 선정한 '일본의 아름다운 해변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된 미우다 해변 풍광이 멋진 돌섬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점심식사를 마치고 한국전망대로 이동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제국 왕인박사 현창비(百濟國王仁博士顯彰碑)'를 둘러 보았다.



이어서 한국전망대 언덕에 서 있는 ‘조선국역관사순난지비(朝鮮國譯官使殉難之碑)’는, 1703년(숙종 29) 2월 제5대 대마도주 종의방(宗義方)의 습봉을 축하하

기 위해조선에서 ‘위문행역관사(慰問行譯官使)’를 태운 선박이 대마도 입항을 앞두고 암초에 좌초되어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사(正使) 한천석(韓天錫)과 부사(副使) 박세양(朴世亮) 등 112명 전원이 물에 빠져 죽는 참변이었다. 이 비는 1991년에 ‘종가문고사료(宗家文庫史料)’에서 묵서로 쓴 사망자 명단이 발견되면서 순국 400주년이 되던 2003년 3월 7일에 순국자 1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추모하는 의미로 112개의 돌로 기단을 쌓아 비석을 세운것이다.

일정을 마치고 이즈하라로 귀환하는 버스에서 최영미 가이드가 읽어주는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과거 삶을 회상하며 남긴 말’을 새기며 지루하지 않게 호텔로 돌아왔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 다니고 나와 함께하며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하라. 이 모든 것은 네 심장과 손에 달려 있다.”

지난밤 태풍급 비바람소리에 잠을 설쳤으나 다행히 바람도 잦아지고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로 변했다. 호텔에서 가까운 하치만구신사(八幡宮神社)는 최익현 선생이 대마도로 유형(流刑)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감옥살이를 한 곳이기도 하다. 신사 입구의 도리이(鳥居)앞 좌우에 문을 수호하는 해태 모양의 석물은 코마이누라 부르는데 의미는 고려견(高麗犬)이라는 뜻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한다.



▲실내를 구경할 수 없었던 하치만구신사(八幡宮神社) 본당의 모습이다.

하치만구 신사에서 도보로 이즈하라의 외성인 ‘청수산성’을 돌아 내성인 ‘금석성’으로 왔다. 임진왜란 때 축성된 시미즈 산성의 기슭에 위치한 평성으로 역대 쓰시마 번주 소(宗)씨 가문이 거주하였다. 조선통신사를 맞이하여 성대한 환영행사를 열기위해 근세 성곽으로 개축되었다고 한다.

200m쯤 걷다 보면 1931년 5월에 덕혜옹주와 36대 대마도 마지막 도주의 아들인 소 타케유키(宗武志)와 결혼한 ‘이왕가종백작가결혼봉축기념비(李王家宗伯爵家結婚奉祝記念碑)’라고 쓰인 비석’을 만나게 된다. ‘결혼 봉축’이라고 하니 축복받은 결혼인줄 착각하기 쉽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로 탄생한 덕혜옹주는 결혼·출산·이혼·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축복받을 수 없었던 삶이었다.



덕혜옹주는 19살이던 1931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대마도주의 세손인 ‘소 타케유키(宗武志)’ 백작과 결혼했다. 결혼식은 도쿄에서 올렸고

덕혜옹주가 대마도를 찾은 건 결혼한 해에 인사차 단 한 번 방문한 것뿐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런 연고로 대마도에 ‘덕혜옹주 결혼 봉축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다.

1955년 소 타케유키는 덕혜옹주와 이혼했고, 덕혜옹주는 정신병원에 외롭게 수감되었다. 그 사실을 조선일보 기자가 폭로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귀국시킴으로써 마침내 덕혜옹주는 고국의 품에 돌아왔다. 7년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창덕궁 낙선재에서 생활하다가 1989년 77세의 나이로 한 많은 일생을 마감했다.

영환 회장은 사진촬영에 바쁜 많은 한국 여행객이 지켜보는 봉축비 앞에서 대한제국의 황제를 이왕가로 격하시킨 치욕의 역사를 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서 덕혜옹주의 슬프고도 아픈 역사를 설명하였다.

덕혜옹주의 삶과 너무나 상반되는 ‘결혼 봉축’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을 더 기구하게 비추는 비석 앞에서 우리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다음 목적지인 쓰시마 박물관으로 향했다.



▲쓰시마 박물관에서 만난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

쓰시마 박물관 특별 전시관에는 마침 한국에서 오랫동안 법정다툼 끝에 반환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을 1개월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첫날이었다. 이 불상은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島) 간노지(觀音寺)에서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되었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2025년 5월 12일 최종 반환된 것이다.

조선통신사 역사를 소개하는 ‘쓰시마조선통신사역사관’을 찾았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열 두차례 파견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고 소개하는 전시관이다. ‘성신(誠信, 정성과 믿음)의 교류’라는 테마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묘사한 두루마리 그림 등 실물과 복제품 약 50점을 전시하고 있다.

세이잔지 앞에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東)가 1727년 설립한 통역양성학교인 한어사(韓語司)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17세기 일본 한반도 담당 외교관이자 교육자로 부산사투리까지 구사할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한 인물이며, 조선과 교류하는데 지켜야 할 54가지를 담은 ‘교린제성(交隣提醒)’을 저술하여 쓰시마번주에 보냈다. 그 마지막 조항이 ‘성신교린(誠信交隣)’이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며, 진실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성신(誠信)의 교류”임을 제9차 통신사 제술관인 신유한(申維翰)이 해유록(海遊錄)이라는 책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한말 유학자이자 구국항일투쟁의 상징인 최익현 선생의 정신을 새긴 순국비를 보려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는 슈젠지(修善寺)로 향했다. 수선사로 들어가는 길은 좁지만 오르는 돌계단 옆 석축 돌담에 핀 자주색 채송화가 어서 오라 반긴다.

정토종(淨土宗) 원성산(圓盛山) 구품원(九品院) 수선사(修善寺)라고 쓴 석비와 함께 시지정 사적 도산눌암의 묘 설명판이 붙어 있다. 문은 열려있는데 관리자는 출타중이고 우측으로 1986년에 세운 순국비가 보였다.

최익현의 본관은 경주,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여 14세 때 성리학의 거두 이항로(李恒老)의 문하

에서 격몽요결, 대학, 논어집주 등을 습득했다. 이 과정에서 이항로의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웠다.

“지금 왜적들이 국권을 농락하고 역신들은 죄악을 빚어내어 오백년 종묘사직과 삼천리강토가 이미 멸망지경에 이르렀다. 이 나라를 위해 사생을 초월하면 못할 염려는 없다 나와 함께 사생을 같이하겠는가?” 최익현 선생은 74세의 고령으로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열린 강회(講會)에서 외치다 체포되어 우리 사법부가 아닌 일제에 의해 재판을 받고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되었다. 이곳에서 적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단식을 계속하다가 병을 얻어 1906년 11월 74세의 일기로 적지에서 순국했다. 조선통신사 막부접우지 국분사(國分寺)는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객사로 알려진 곳이다. 1811년 조선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개축했던 것을 해체했고 현재는 부지만 남아 있다. 하지만 국분사 입구의 산문(절의 바깥문)은 에도시대 그대로의 것으로 세월의 흐름이 충분히 느껴진다.



여행을 마치며...

역사적으로 쓰시마인(對馬島人) 들은 무역(貿易)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생존을 위해 해적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 주말이면 평균 500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쓰시마를 찾는다고 한다. 우리가 이즈하라에서 출국하던 토요일 오후에도 한국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밀려 오는 것을 목격했다. 지난해 6월 백두산을 등정할 때도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대마도 역시 규모는 작지만 이와 비슷한 실상을 본 것이다.

한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쓰시마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조선을 위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순국비와 순난비를 비롯한 현창비, 공적비, 통신사비, 시비 등 섬 곳곳에 우리 한반도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각종 비석들이 서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에 충분한 역사 현장이다.

『대종회 사무총장 태영』



양지현감 김공 덕봉 덕정비(縣監 金公德鵬 德政碑).. 용인 지역 선정비의 시초

▶소재지 :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내

▶지 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5



▲전면

▲후면

1576년(선조 9)에 양지현감을 지낸 김덕봉(金德鵬, 1523~1586)의 선정(善政)을 기리기 위해 남곡리에 세워진 덕정비(德政碑)는 용인시 관내에 현존하는 8기의 선정비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송덕비(頌德碑)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덕정비는 대리석으로 조성되었으며, 높이 140cm이다. 비신(碑身)과 이수(螭首)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비신 앞면에는 "현감김공덕봉덕정비 만력사년정월일립(縣監金公德鵬德政碑 萬曆四年正月日立)"이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어 1576년 정월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비신의 높이는 98cm, 너비 51cm, 두께 22cm이며, 이수의 높이는 42cm, 너비 58cm, 두께 31cm이다. 김덕봉은 1571년(선조 4) 양지 현감으로 부임하여 1576년(선조 9)에 이임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베풀어진 선정을 기리기 위해 고을 백성들이 이 비를 세웠다.

淸德好生 撫字推誠 仁深恩洽 民安政平
淸德好生 무자유성 인심사함 민안정평

큰 덕을 품고 출생하여 맑은 성품으로 정성을 다해 글을 배우고 관직에 올라 어진 사랑과 은덕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백성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다스렸다. 김덕봉(金德鵬, 1523~1586)은 중종 18년(1523)에 태어나 선조 19년(1586)에 향년 63세로 생을 마감했다. 자는 익보(翼甫)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상락공 김방경의 후손이자 익원공 김사형(金士衡)의 6대손으로, 증조부는 목사공 김적(積), 조부는 영안



▲용인시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내 비군

사천목씨이며, 묘소는 당진 순성에 설단이 있다. 권문해의 초간집에 김덕봉을 기리는 만시(輓詩)가 실려 있다.

군 김수경(壽卿), 아버지는 화산군 김해(灌)이다. 그는 아버지의 넷째 아들이며, 평안감사를 역임한 김덕룡(金德龍)의 아우이다. 1546년(명종 1) 23세에 진사가 되었으며, 양지현감과 청도군수를 지냈다. 배위는

청도군수 김익보(덕봉)를 애도하다. 輓 淸道郡守 金翼甫 德鵬

卓犖軒昂八尺姿 우뚝하게 뛰어나고 기개 넘치는 팔척 장신의 풍채에
素懷常與古人期 평소 품은 뜻은 언제나 선현(先賢)들과 같았다네
一登蓮榜推先輩 연방(蓮榜)에 오르자마자 선배로 추대되고
四試牛刀有後思 네 차례나 외직(外職)에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이 추앙했네

嶺邑羈魂飄不返 영남 고을에 떠도는 외로운 님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漢津丹旆遠難追 당진 나루 붉은 만장은 멀리 있어 따르기 어렵네.
白頭幸忝同隣契 백발이 되도록 이웃으로 인연 맺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執紼空題感舊詞 상엿줄 잡은 채 허허로이 옛 시를 읊조린다네

이 시는 「대동운부군옥」으로 유명한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 선생이 고인(故人)이 된 청도군수(淸道郡守) 김덕봉(金德鵬, 1523~1586)을 애도하며 지은 만사(輓詞)로 고인의 뛰어난 풍모와 재능, 그리고 이루지 못한 뜻에 대한 아쉬움이 잘 드러나 있다. 권문해 선생은 예천에 보물로 지정된 초간종택과 초간정이 있다.

『출처 : 한국문집총간 / 초간선생문집 / 권2 시 / 칠언율시』